

초등특수교육과 박경옥 교수님

교수님의 서재



교수님의 한마디

학과에서 소모임으로 한 학기에 책 5권 읽기를 해 오고 있다.
 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님들의 서재를 털겠다고 했을 때 매우 반가웠다. 학생들이 읽었으면 했던 책,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었던 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고맙다.
 2만 여명의 학생 중 몇 명이나 추천 책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단 한명이라도 읽어준다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소감 또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

저자 김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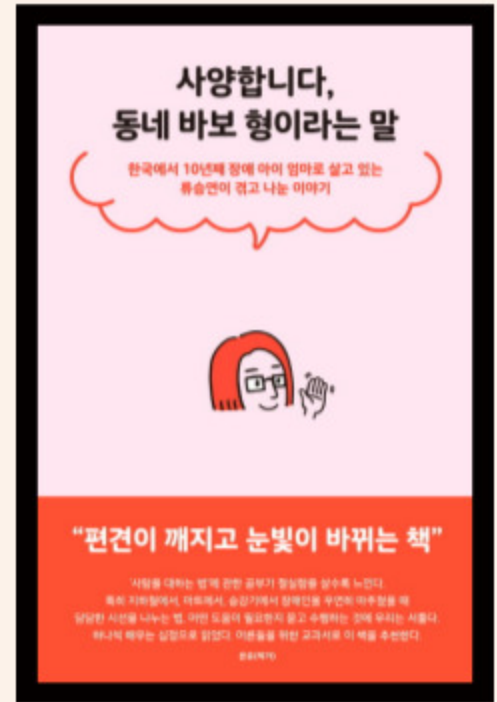
370.18 김94ㅇ 2019
3층 사회과학자료실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그리다**

저자 송명숙

379.1 송34ㅁ 2021
3층 사회과학자료실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저자 류승면

598.15 류57ㅅ 2018
4층 과학기술예술자료실

초등특수교육과 박경옥 교수님

교수님의 서재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

저자 김현수 출판사 해냄

370.18 김94° 2019 3층 사회과학자료실

요즘 학교 붕괴, 교실붕괴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특수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장애학생들이 붕괴된 교실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보면 적지 않은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고통 속에 보내기도 한다.

이 책에는 피폐해진 요즘 아이들의 상처를 볼 수 있다. 그 상처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올가미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을 전공하는 사범대학생,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교강사에게 요즘 아이들이 어떤 마음 고생을 하고 살고 있고, 우리 대학에 들어 왔는지 이해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장애학생이 다닌 학교에 우린 어떤 마음으로 이들의 통합교육을 실천할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추천한다.

초등특수교육과 박경옥 교수님

교수님의 서재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그리다

저자 송명숙 출판사 한울림스페셜

379.1 송34ㄱ 2021 3층 사회과학자료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은 참 어렵다.

우리 대학에서 재학하고있는 260여명의 대학생들도 강의실에서 대학의 캠퍼스에서 안녕한지 묻고 싶다.

이들의 통합교육이 참으로 요원하다는 이야기를 뒤집어 놓은 책이다.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25년 특수교사경력을 가진 교사가 담담하고 담백하게 살아온 길을 안내한다. 마치 후배들에게 불가능하지 않음을 확인 시켜준다.

30여년 특수교육을 해온 입장에서 "찐"이 나타났다 감동하고 감탄한 책이다. 특수교사를 꿈꾸는 이들과 장애학생을 학급에서 만났을 때 당황하고 싶지 않은 모두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초등특수교육과 박경옥 교수님

교수님의 서재



창파
도서관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저자 류승연 출판사 푸른숲

598.15 류57~ 2018 4층 과학기술예술자료실

TV에서 아주 쉬운 소재가 동네 바보 형이다.

봉숭아 학당에 맹구가 있었고, 맨발의 기봉이가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연예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면 재미있는 소재꺼리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며 웃는 사람들을 본 장애아이를 둔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 입장을 바꿔 잠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책은 장애아이를 둔 전직 정치부 기자 출신인 류승연의 글이다.

잘나가던 정치부 기자가 어느 날 동네 바보 형이 될 아들을 두게 되면서 자신이, 그리고 사회가 장애인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네 "바보 형"이라 불려질 것을 정중하게 사양하겠다 선언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특수교육과 장애인의 정책에 대해 날카롭게, 그러면서 이기적이지 않게 글을 적어내려가고 있다.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있었음 좋겠다.